

교육현장 '참여형 정책숙의제' 시동

교사·학생·학부모 대표 전원, 교육정책 공론 후 결정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수립 단계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참여형 정책숙의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전북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각 동수로 구성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집담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교육

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의 첫 번째 정책숙의제 대상은 자유학기제 차원의 교육과정으로서 '허클베리핀 프로젝트'(가칭)인데, 이 정책 이름과 방향도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형식적인 진로 체험에서 탈피해 계획-실행-분석-평가 등 전 체험활동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실행해 봄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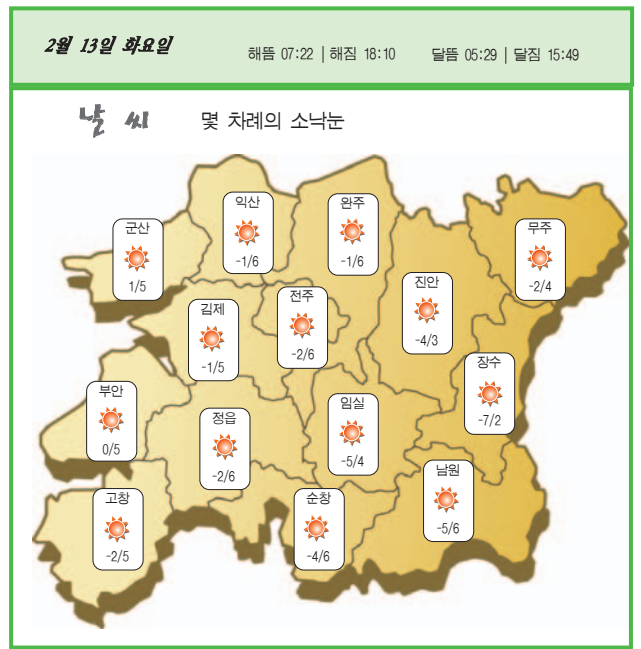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에서부터 지원 대상(중2 또는 고1)과 규모(전면 실시 또는 희망학교), 사업의 지속성 유무와 적용 시기(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기타 안전, 예산집행 및 운영, 교사 업무 부담 등을 모두 참여형 정책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6월까지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시행이 결정되면, 7월 중에 정책안을 마련해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2학기에 예산을 교부해 내년 1월

까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은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9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정책 숙의 과정을 거쳐 시기와 대상 등이 결정되면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정부의 몇몇 교육정책이 연기되고 반복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또 하향식(TOP-DOWN)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한 한계도 노출됐다"면서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 전원이 모여 공론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맛있게 드시고 오래하세요"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전주점)

전북대, 새만금에 중소형 선박 시험연구소 설립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새만금 프리티어컴퍼스 내에 중소형 선박을 시험·연구하고 관련 분야 기업 육성 등을 모색하는 '중소형 선박 기저재 품질고도화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최근 본부 8층 회의실에서 한국조선해양기저재연구원(원장 김경철)과 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대는 새만금컴퍼스 내에 약 8,926㎡ 가량의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조선해양기저재연구원은 중소형 선박 기저재 품질고도화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 센터는 예산 180억 원을 들여 120m 규모의 실제 선박 모양으로 건립된다. 이 곳에서는 실선대용 시험·연구 Test-Bed 시스템 및 장비 등이 구축되고,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도 입시시켜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인적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지역산업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술자료 교류 활성화 등의 공동 개최 및 중대형 국제과제 공동 수주·수행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남호 총장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큰 시너지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지역에 구축 될 '중소형 선박기저재 품질 고도화센터'가 활성화 되어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설연휴도 체험 프로그램 풍성

전주자연생태관 15일~18일, 가족영화 상영 등 다채

전주자연생태관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생태도시 전주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연생태관은 대형 육지거북 및 파충류 전시, 세계회귀곤충 디오라마 전시, 컬러클레이를 이용한 곤충 만들기, 만딧볼이·닥터피쉬 체험, 가족영화상영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생태관 1층에서는 대형육지거북과 세계회귀곤충 디오라마를 전시한다. 이곳에서는 육지거북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 생

물습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수조에 손을 넣으면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 체험과 소원나무에 새해에 소망하는 것을 써 매달도록 하는 행사도 있다.

2층에서는 버비즈파이톤과 아르헨티나테구도마뱀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대형 파충류를 전시하며 파충류캐릭터 포토존도 설치돼 전주자연생태관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규남기자

전주시, 설 명절 시민에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

전주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 시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 관광객이 편안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총괄반과 청소대책반, 교통대책반, 재해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전주시립은물사업본부, 전주시보건소에서도 자체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총 433명의 직원들이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에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과 도로, 상하수도, 청소, 가로, 보안 등의 6대 생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시청 종합상황실 4개반은 반별 1명은 상황유지하고 1명은 현장순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완산·덕

진구청의 생활민원 처리반은 연휴기간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찰서와 소방서, 한전, KT, 도시가스 등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모든 시민과 귀성객이 불편함 없는 연휴를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건·사고 예방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대처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기자

전주보건소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돌본다.

전주시보건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440개소를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반 설 명절 연휴기간 보건소 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설치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129(보건복지콜센터) 등과 연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곳에서는 시민들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응급진료 의료기관 및 상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규남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